

우리는 어떤 성도, 어떤 교회입니까

04/28/2024

한국 교계에서 언제부터인가 “가나안 성도”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,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. “가나안 성도”에서 “가나안”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“교회 안나가”에서 “안나가”를 뒤집은 언어유희입니다. 현재 한국에서 “가나안 성도”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무려 30%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. 이민교회에도 상당수가 “가나안 성도”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<가나안 성도>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.

팬데믹 이후 “가나안 성도”는 더 세련된(?)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이름은 “OTT Christian” 혹은 “Floating Christian”입니다. <OTT 기독교인>은 넷플릭스, 애플TV 등 OTT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Youtube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 <플로팅 기독교인>은 말 그대로 “표류하는 기독교인”입니다.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Youtube를 비롯한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며 신앙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 이들은 또한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.

이들을 싸잡아 “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”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,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

다.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.

제가 어릴 적 들었던 “가나안 성도”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. 그 말은 “나이롱 신자”입니다. 미국에서는 “Sunday Christian”이라고 하거나 보다 전문적으로 “Church-goer”라고 했습니다. 이들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했습니다. 이들의 특징을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[①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. ②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. ③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(교제) 때문이다. ④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. ⑤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]

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. “가나안 성도”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, 먼저 우리가 과연 어떤 성도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.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“~답다”라는 말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. <교회가 교회답다>라는 것은, <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>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,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답고, 그리스도인답을 수 있습니다. 한울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,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목표이며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되도록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.